

· 인권 존중 · 성평등한 캠퍼스 문화 만들기

# Gender Story





## 인권·성평등센터 소식지 제 19호

발행일 : 2023년 2월 28일  
발행 : 송준아  
기획 : 노정민 김해솔  
편집 : 국지현  
발행처 : 인권·성평등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 5가  
고려대학교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층 101호 인권·성평등센터

\* 전화 02)3290-1700  
\* 팩스 02)3290-2550  
\* 홈페이지 [humanrights.korea.ac.kr](http://humanrights.korea.ac.kr)  
\* 이메일 [humanrights@korea.ac.kr](mailto:humanrights@korea.ac.kr)

Copyrights. 2023 KUCHARGE. All rights reserved.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인권·성평등센터의 동의 없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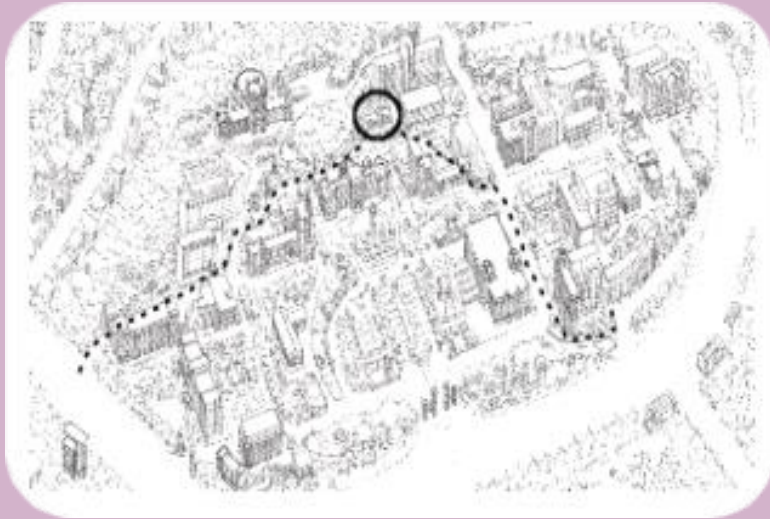
1. 인권·성평등 센터 소개	04
2. 2022년 서포터즈 활동 스토리	05
1학기 활동 스토리	
2학기 활동 스토리	
3. 나누고 싶은 이야기	18
장애인 인권과 일상: 제도와 배리어프리한 공간을 생각하다	
당연한 것을 지키려는 삶에 대하여	
생리, 너를 알고 싶다!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론장	
장애인 이동권 시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인권·성평등센터 활동을 마무리하며	
4. 2022년 활동을 마치며	39



# 1. 인권·성평등센터 소개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교내 규정에 따라 구성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을 보호하고 침해를 예방하며, 교내에서 발생한 기본권리 침해 사안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제공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진행하고, 성희롱·성폭력 및 성매매 그리고 가정폭력(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한 법정교육을 담당합니다.

교육과 기본권리 침해 예방 활동을 통해 인권을 존중하며 성평등을 지향하는 캠퍼스 문화를 형성하고 확산하여 고려대학교 구성원 개개인의 존엄을 지키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안암역 2번출구에서 출발한다면,**

정대후문을 지나서 타이거플라자, 국제관, 문과대학 뒷길, 다람쥐길을 따라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층 101호로 오시면 됩니다.

**고려대역 1번출구에서 출발한다면,**

오른쪽 계단을 올라와서 LG-POSCO관과 백주년 기념과 사이 오르막길, 대학원 도서관과 구법학관 샛길을 따라 동원글로벌리더십홀 1층 101호로 오세요!



## 2. 2022년 서포터즈 활동 스토리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는 인권·성평등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알리고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교내의 성평등한 대학 문화와 교육환경을 위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 2022년 활동 개요

2022년의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활동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대면 활동과 대면 활동을 병행하며 영화세미나와 플로깅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성평등을 포함한 인권과 관련한 주제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대면 활동을 하며 친환경 면생리대 행사도 무사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서포터즈 분들의 참여와 노력 덕분에 2022년도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1학기

첫 번째 모임 (3/23) - 오리엔테이션	3월
두 번째 모임 (3/30) - 영화 <너에게 가는 길>	
세 번째 모임 (4/06) - <너에게 가는 길> 후기	4월
네 번째 모임 (4/13) - 이슈 토론회	
다섯 번째 모임 (5/04) - 플로깅 (쓰레기 줍기)	5월
여섯 번째 모임 (5/18) - 대안 달거리대 만들기 행사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	

#### 2학기

9월	첫 번째 모임 (9/28) - 오리엔테이션
10월	두 번째 모임 (10/05) - 영화 <복지 식당>
11월	세 번째 모임 (11/09) - 영화 <휴가>
	네 번째 모임 (11/23) -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



## 2. 2022년 서포터즈 활동 스토리

---



# 1 학기 활동 스토리





## 첫 번째 모임 (3/23) - 오리엔테이션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소개 및 한 학기 서포터즈 활동 대주제와 세부 활동 계획 논의 진행

**대주제 설정:** 청년 인권, 미디어와 인권, 아동 인권 등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논의한 결과, <삶과 인권>을 대주제로 선정하여 우리 삶 속 인권과 관련된 각자의 관심사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서포터즈 활동을 기획

**활동 기획:** 세미나 형식 이외에도 인권과 성평등 문제에 대해 다양한 형태로 논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출발하여, 아이디어를 공유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실현 가능한 것으로 구체화된 사항으로는 영화 세미나, 다큐멘터리 시사회, 이슈 토론회, 비건 요리 체험, 교내 구성원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두 번째 모임 (3/30) - 영화 <너에게 가는 길>

성소수자 및 그들의 부모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너에게 가는 길>을 선정하여  
영화 세미나 진행

### 영화 시청 후 나눔

- A.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대립과 갈등을(여성, 장애인, 성소수자 등)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 B. 현재 체제의 성별 이분법적 관점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젠더로의 성별 정정을 위해서 사회가 생각하는 '진정한 남성성/여성성'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 C. 특히, 영화 마지막에 동성애자 분들은 동거를 하지만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며 동성결혼합법화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출처: 변규리감독, 영화 <너에게 가는 길> 포스터





## 세 번째 모임 (4/06) - <너에게 가는 길> 후기

<너에게 가는 길>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국에서의 동성결혼, 성소수자 관련 제도의 문제점, 부정적 시선의 근본적 원인에 대해 토의

세미나 준비: 토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독일, 프랑스, 대만의 동성결혼 현황과 한국의 성별정정 과정을 소개

### 세미나 내용

- 1) 한국의 성별정정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요구되는 사회적 남성성과 여성성의 불합리성에 관한 문제 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이분법적 태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관련 법률, 정책 등의 내용 및 제정에 관하여 사회적 인식 재고의 필요성이 논의 되었습니다.
- 2) 동성애,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집단이 왜 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며, 일부 종교계의 문제가 혐오 세력의 영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종교계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노력 및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종교 지도자와 신자가 교리에 담긴 의미를 함께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가지는 방법, 동성애 등에 관련하여 종교계 인물들 간 토론을 진행하는 등 종교의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실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습니다. 더불어 동성애 지지 세력은 더욱 결집하여 법제화 등의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데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 4월



## 네 번째 모임 (4/13) - 이슈 토론회

이슈 토론회와 관련된 주제인 ‘소수자 간 연대, 가족’ 및 새로운 주제인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자유 형식으로 토론을 진행

### 토론 내용

- 1) **소수자 간 연대:** 국회에서 소수자를 위한 다양한 법안이 논의되는데, 이해관계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약자 간 연대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그 요인으로 각 집단의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한 욕망이 갈등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습니다.
- 2) **가족 관련:** 외국과는 다르게 한국은 여성이 결혼 후 남성의 성을 따라가는 문화가 없는데, 이것이 여성을 존중하기 때문은 아니라, 오히려 여성을 집안의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성씨 문제와 성평등 지수 간 상관관계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는데, 아바의 성을 따르는 현재 한국 성씨 제도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대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제도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관습과 인식의 변화 역시 중요하다는 의견에 많은 동의가 있었습니다.
- 3) **장애인 이동권/인권:** 장애인 단체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이익집단이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현상에 대해 비판의견이 많았습니다.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만날 일이 적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탈시설의 중요성이 언급되었으며, 약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무엇인지를 토론 하였습니다.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늙어가는 세상에서 왜 장애인의 입장을 공감하지 못하는지에 대해 논의 중 소수자의 권리를 다수자가 허락하는 식의 현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 되었습니다. 추상적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요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충분히 구체적으로 요구했지만 언론 보도 등에서 그 내용을 축소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혐오에 편승하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전장연 시위’를 바라보는 대중과 언론, 정치인들의 태도를 통해 장애인 논의가 발전하기보다 퇴보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다섯 번째 모임 (5/04) - 플로깅

학교 주변과 정릉천 일대를 돌며 '쓰레기 줍기(플로깅)' 활동을 진행

## 활동 내용

플로깅은 스웨덴어의 '플로카 업(줍다)'과 '조가(조깅하다)'를 합성하여 만든 '플로가'라는 용어의 명사형으로, '쓰레기를 주으며 조깅하기'라는 의미입니다. 조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조깅을 통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환경을 지키는 환경보호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면 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병행하게 된 올해 서포터즈들과 함께 건강과 환경 보호라는 취지 아래 '플로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권 성평등 센터를 출발해 학교 정문, 정릉천 일대를 돌며 쓰레기를 줍는 환경 정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 안은 쓰레기를 거의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였으나 학교를 벗어나자마자 많은 쓰레기를 발견하였습니다. 정릉천 주변에 쓰레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오히려 주택가에 가까울수록 쓰레기가 많았으며, 특히 가장 많은 쓰레기는 담배꽂초였습니다. 담배꽂초 등 다양한 폐기물을 수집하여 환경 정화에 기여하였으며, 서포터즈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의 효과가 기대되었습니다.



## 여섯 번째 모임 (5/18) -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

###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 진행

#### 활동 내용

월경에 대한 편견과 대안 월경 용품의 필요성과 종류에 관련된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월경이 비위생적이며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탐폰, 월경컵, Thinx팬티, 면 생리대 등 다양한 대안 월경용품을 알아보았습니다.

대면활동으로 서포터즈들과 함께 천을 바느질하며 친환경 면 생리대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재료와 자료가 담긴 키트를 배송하였습니다.



## 2. 2022년 서포터즈 활동 스토리



# 2 학기 활동 스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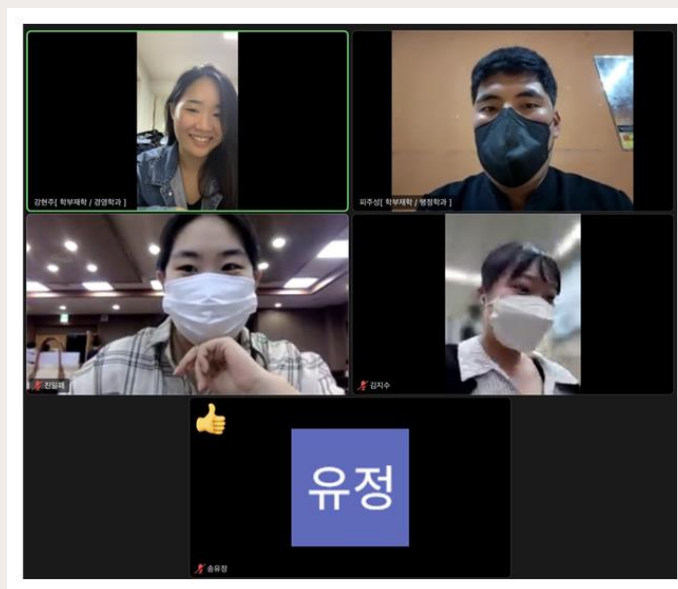


## 첫 번째 모임 (9/28) - 오리엔테이션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소개 및 2학기 서포터즈 세부 활동 기획 논의 진행

### 활동 기획

- 1) 사회의 다양한 인권 문제를 고찰하기 위한 방식으로 영화세미나를 주 세미나 방식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영화 세미나 형식을 통해 영화를 시청한 이후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 2) ‘대안 달거리대 만들기 행사’는 지속하되,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3) 인권·성평등센터와 서포터즈 홍보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의 제안이 있었으며, 추후 구체적인 진행 방향 및 방법에 대해 논의해보기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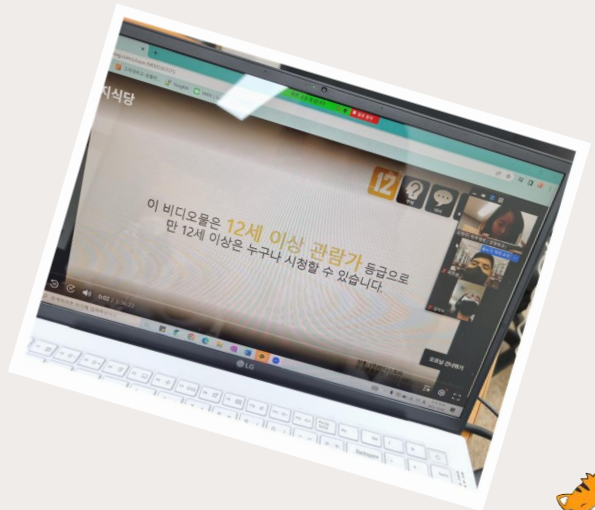
# 10월

## 두 번째 모임 (10/05) - 영화 <복지 식당>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삶을 다룬 영화 <복지식당>을 선정하여  
영화 세미나 진행 (대면 시청과 비대면 시청을 병행)

### 영화 시청 후 나눔

- A. 장애를 갖게 된 후의 일상이 현실적으로 잘 담겨 있었으며,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며 느낀 감정들을 공유하였으며, 국가의 제도가 장애인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장애인들이 제도가 아닌 사적인 친분에 의존해 삶을 영위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 B. 문턱, 계단 등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배리어프리하지 않은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일상적인 부분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제도 및 자립을 위한 방법들이 어떻게 개선되면 좋을지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 세 번째 모임 (11/09) - 영화 <휴가>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의 가치를 다룬 영화 <휴가>를 선정하여  
영화 세미나 진행 (대면 시청과 비대면 시청을 병행)

### 영화 시청 후 나눔

- A. 해고노동자들의 투쟁 현장보다는, 그들의 일상과 삶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영화를 통해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 B. 영화 속 청년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하지 못하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가족과의 일상에서 멀어져 투쟁의 현장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보게 되었고 분노와 슬픔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 C. 노동자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기저에는 노동의 가치에 대한 무시와 무지가 있음을 알고, 오늘날 기업자본주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노동자의 인권과 가치를 제도적, 윤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



## 네 번째 모임 (11/23) -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

###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 진행

####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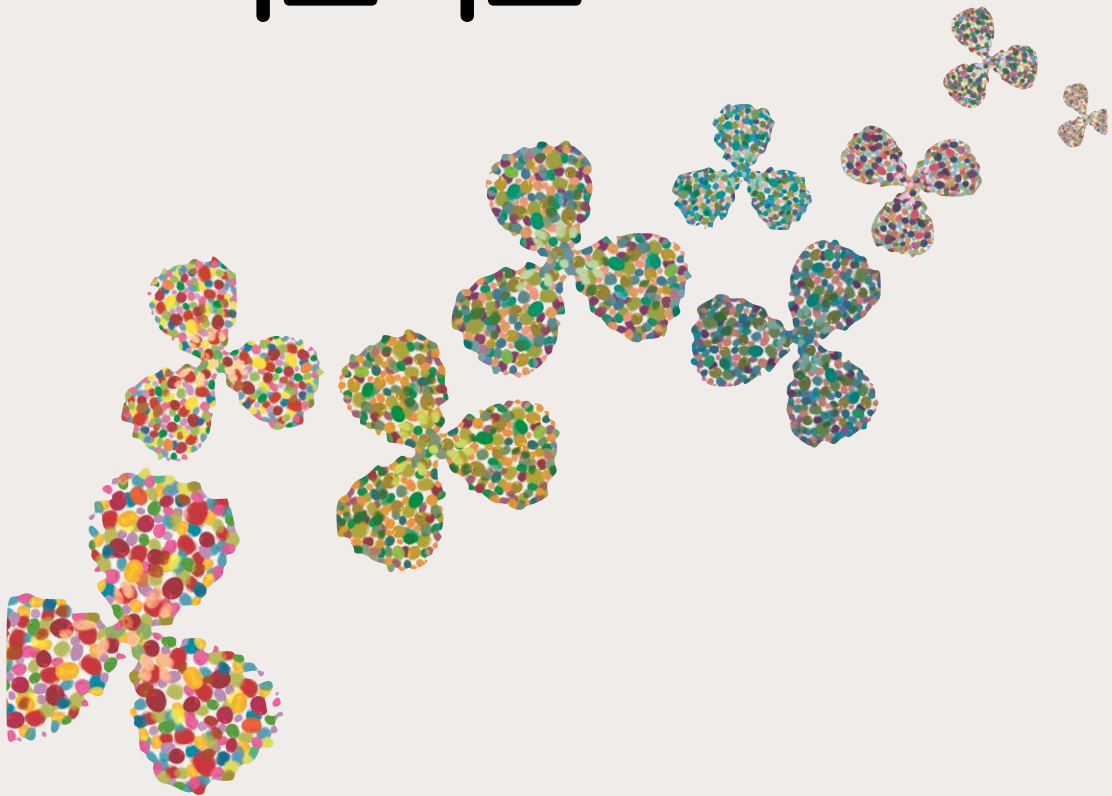
1학기과 마찬가지로 월경에 대한 편견과 대안 월경 용품의 필요성과 종류에 관련된 글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탐폰, 월경컵, Thinx팬티, 면 생리대 등 다양한 대안 월경용품을 알아보았으며, 생각보다 다양한 용품들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월경이 비위생적이며 여성들에게만 한정된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서로를 이해 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천으로 만드는 친환경 면 생리대를 직접 제작하였으며, 온라인으로 신청한 학생들에게는 재료와 자료가 담긴 키트를 배송하였습니다.



### 3. 나누고 싶은 이야기

# 인권·성평등센터 & 서포터즈



# 장애인 인권과 일상: 제도와 배리어프리한 공간을 생각하다

- 영화 <복지식당>을 감상하고

강현주

영화의 주인공 재기는 홀로 거동조차 힘든 중증에도 불구하고, 경증의 장애 등급을 받아 힘겨운 싸움 중이다. 잘못된 판정으로 이동에 필수적인 전동휠체어도 지원받지 못하고, 취업 또한 쉽지 않다. 그의 딱한 사정을 봐준 선배 장애인 병호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되찾는가 했지만, 이후 병호는 야욕을 드러내며 취업과 장애인 등급을 미끼로 재기에게 돈을 뜯어낸다. 나아가 병호는 재기를 자신의 수하처럼 부리면서 복종을 강요하기까지 한다. 영화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의 고단한 사투와, 장애인 사회 안에서도 발생하는 착취와 폭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개인적으로 정책에 관심이 많아서, 어떻게 정책을 설계해야 제도의 모순과 허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영화 속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주인공 같은 안타까운 사례를 해결할 수 있을까 착잡한 마음으로 고민하며 영화를 보았다. 병호는 뛰어다닐 정도로 비장애인에 가까운데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아 필요하지도 않은 지원을 누리며 여유롭게 호가호위하고, 정작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재기는 병호에게 도움을 구걸하며, 결국엔 삶의 지속이 위협받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

영화에 묘사된 제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영구적인(번복할 수 있지만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비용이 너무 크고, 뒤집힌다고 장담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영구적) 장애등급 판정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고 주관적이라는 점이다. 주인공은 판정인 단 한 명의 오판과 대충으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갇히고 삶이 나락으로 무너져내렸다.



영화에서 묘사된 제도와 현실의 제도가 일치한다면, 가장 먼저 장애 판정인을 독립된 2~3명으로 하여 교차 검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병호와 재기처럼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지 못하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 나아가 제도를 악용하고, 타인의 고통을 자신 삶의 도구와 유희으로 즐기는 병호 같은 사람들은 단호히 엄단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과 합당한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재기같은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장치 역시 필수적이라고 느꼈다. 나는 주기적으로(3년 제안) 장애등급을 재검하고 조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영화 속에서 비장애인에겐 일상적인 공간들이 장애인에게는 높은 장벽처럼 기능하는 모습 역시 나의 일상을 돌아보게 되었다. 학교 건물을 드나들 때도 평소엔 눈여겨보지 않고, 존재하는지 인식하지도 못했던 입구의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문턱 등을 주의 깊게 보게 되었고, 학교 밖에서도 저상버스 등 신체의 불편과 상관없이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여러 장치들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다. 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단지 신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배제 받는 비통한 감각을 느끼지 않는 사회로, 진정으로 모두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쪽으로 나의 마음이 한 발짝 나아갔고, 나의 세계가 확장되었다.



# 당연한 것을 지키려는 삶에 대하여

- 영화 <휴가> 감상문

이혜나

평소 독립영화를 좋아해 우연히 영화<휴가>를 알게 되었다. 노동자의 모습을 담은 영화라고 해서 인권·성평등 서포터즈에서 보고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제안했고, 함께 보게 되었다.

<휴가>는 해고 5년차, 천막농성 1882일째. 노조가 정리해고무효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자 열흘 간 집으로 휴가를 떠난 재복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이다. 자극적이고 파란만장한 사건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고 노동자인 재복의 휴가 생활을 잔잔하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여준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도 챙기고 아르바이트로 돈도 벌며 딸의 등록금을 마련한다. 그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 친구의 가구 공장에서 겪는 일들을 보며 여러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영화였다.

작업도중 사업장에서 동료 준영이 사고를 당하는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 준영은 자신의 실수이기 때문에 병원비도 자신의 돈을 지불하고 오히려 병원까지 태워준 상사 우진의 배려에 고마워한다. 하지만 재복은 이는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이므로 병원비도 직접 낼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하며, 산재를 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진은 산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했고,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기도 했지만 결국 병원비를 받을 수 있었다. 산재신청은 괜히 문제를 만드는 일이거나 사정이 어려우니 법대로 다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이다. 하지만 우리 현실에서도 이처럼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노동자는 사용자보다 옮이기 때문에, 부당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수는 없어서,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없어 투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부당함을 감내하고 살아가기도 한다.



부당해고를 당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었겠지만 재복은 자신의 억울한 해고가 부당했음을 말하기 위해서 다시 농성장으로 돌아간다. 수익이 없어 생활도 힘들고, 관심도 시들해져가는, 심지어 소송에서도 패소해 희망적이지 못한 미래라고 할지라도 그만둘 수 없다. 누구는 미련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리가 후퇴하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누군가의 부당해고가 당연한 것,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면 나에게 대한 부당해고도 쉬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누구의 해고도 쉽게, 회사의 마음대로 행해질 수 없도록 연대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재복 또한 그렇기 때문에 잠깐 함께 일했을 뿐일지도 모르는 준영이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산재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위해, 그리고 본인을 위해, 사회의 모든 노동자를 위해 산재처리라는 당연한 권리는 보장되어야만 한다고 외친 것 아닐까 생각한다.

대학을 졸업하고 곧 노동자가 될 우리도, 혹은 이미 아르바이트, 인턴 등으로 노동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택배, 대중교통 파업이 있을 때 불편하다고 불평하기보단, 농성, 시위를 보고 시끄럽게 왜 저런 걸 하냐고 여기기 보단 누군가의 외침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다. 기업의 이윤보다 노동자의 안전, 생명, 권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나의 노동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노동권도 소중하기 때문에. 열악한 위치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 침해가 쉬워진다면 언제 나의 차례가 오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께 더 나은 사회를 향해 가면 좋을 것 같다.



# 생리, 너를 알고 싶다!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 참여 소감문

송유정

지난 2022년 11월 23일,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는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인권·성평등센터 학부 조교들과 인권·성평등서포터즈 19기가 함께하였다. 비대면으로 함께한 학생들도 있다. 우편 배송을 택한 스무 명 남짓의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배송된 키트를 활용하여 면생리대를 제작하였다.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는 언제나 유의미하게 느껴지지만, 이번에 유독 직접적으로 다가온 것은 내가 조교로 참여했기 때문일 것이다. 직접 원단을 고르고, 주문하여 틀에 맞게 자르는 작업까지 무엇 하나 쉽지 않았던 과정들이 있었다. 행사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에는 타학교 학생까지 신청하여 더욱 특별했다.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는 여성의 생리 자체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든다. 면 생리대를 만들면서도, 아직 면 생리대를 써본 경험이 없는 나에게 진입장벽은 높기만 하다. 혹은 그렇게 느껴진다. 일회용 생리대가 건강에 좋지 않다거나, 환경에 가하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뼈아프게 느껴지면서도 일회용 생리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것이 간편하고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이다. 이 지점에서 나는 스스로 의문을 품게 된다. ‘배워’왔다고? 여성이 살면서 생리에 관해 직접적으로 교육받는 경험은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한다. 오죽하면 직접 몸소 깨달아야 한다는 말까지 있겠는가. 생리가 처음 시작된 초창기에 엄마에게 배웠던 생리대 사용법을 제외하면, 생리에 대한 교육은 전무후무하다. 그렇지만 눈치껏 혹은 암암리에 그렇다길래 일회용 생리대를 사용하며 살고 있다. 날개가 떨어지는 부실함을 감수하고서.



생리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매년 매달 1주의 시간을 들여야 한다. 만약 생리불순이 있다면, 혹은 생리통이 심하다면 동반되는 심리적 고통은 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 처한 원인이나 해결 방법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저 참고 견뎌야 할 뿐이다. 가끔은 정말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받기도 한다. 생리는 연구의 대상이 되어오지 못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덮치고, 이후 백신이 개발되었을 때 여성들은 생리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아야만 했다. 매년 매달 엄청난 수의 여성들이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생리가 연구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리에는 아직 규명되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다. 갑작스레 생리하지 않아 불안감에 떨며 병원을 찾아가도, 의사는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는다. 의학이 무색해지는 순간이다.

생리에 관해서, 나는 알고 싶은 것들이 많다. 사소하게는 나만 이렇게 생리를 오랫동안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사람들은 생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알고 싶다. 나아가 빈곤 여성의 생리에 관해서도 논의하고 싶다. 그들에게 생리대가 잘 지원되고 있는지, 매달 생리를 ‘무사히’ 넘어가고 있는지 알고 싶다. 내 궁금증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 분명 누군가는 이러한 질문들에 답할 의무가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만 한다. 여성들에게는 생리를 터놓을 장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지식이 동반되어야 한다. ‘누가 그렇대’가 아니라 ‘이래서 그런 거야’라는 답을 듣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생리를 금기시하지 않는 사회가 필요하다. 몇 년째 지속돼오고 있는 뻘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내지 못했고 끊임없이 되새길 필요가 있다. 여전히 우리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생리를 터놓고 이야기하기 꺼리며, 옷에 피가 묻은 사람이 있다면 가려주는 것을 매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누가 내게 말한 적 있다. 옷에 얼룩이 묻으면 닦을 것을 주거나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왜 생리에만 다른 기준을 적용하느냐고. 정말 그렇다. 생리는 숨기거나 가려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이 자연스럽게 하는 무언가를 부끄럽거나 혹은 말하지 못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리가 더 자주 논의되고, 종국에는 교육의 대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친환경 면 생리대 만들기>와 같은 행사가 그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리라 믿어보며, 다음 행사를 고대해본다. 그때의 나는 면 생리대에 도전해봤기를!



##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론장

-<대안 달거리대 만들기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행사> 후기

박재현

생리통으로 고생하는 친구 대신 생리대를 사다 준 적이 있었다. 계산대 앞에서 문득 검은 봉투도 함께 구매해야 할까 고민이 됐다. 남성인 내가 생리대를 들고 있는 것이 조금 어색하긴 했으나 부끄럽진 않았다. 다만 생리대를 건네받을 친구의 마음이 어떨지는 알 수가 없었다. 검은 봉투에 생리대를 담아 주는 것이 일종의 매너처럼 여겨지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괜한 오기가 생겨 봉투를 구매하지 않았다. 생리를 해 본 적 없는 나는 생리에 대해 잘 모르지만, 적어도 생리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생리는 아마 많이 억울할 것이다. 잘못된 것도 아닌데 꼭꼭 숨겨지기 일쑤고, 드러날 만하면 거짓된 모습으로 오해받으니 말이다. 생리대 광고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광고는 생리를 ‘그날’, ‘마법’ 등의 이름으로 숨기거나, 새하얀 원피스에 편안함 등 실상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묘사한다. 광고에 생리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거나 붉은 이미지 등이 묘사되기 시작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이는 생리의 억울함 정도로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생리는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재생산권 논의,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이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리에 대한 논의는 이렇게나 중요한데 그 무엇보다 왜곡되거나 터부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의 <대안 달거리대 만들기 행사(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는 단순히 생리대를 직접 만들어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행사의 제목부터 생리가 주인공임을 선언하는 듯하다. 또 단순히 바느질하여 면 생리대를 만드는 것뿐 아니라, 읽기 자료를 통해 생리와 기존 생리용품의 문제점 등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다. 무엇보다도 터부시되던 생리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적인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론장에 참여하는 것은 생리하는 당사자의 일만은 아니다. 대충 계산해도 인구의 약 절반이 생리를 하거나 했거나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는 신체활동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위협받는다니,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다. 한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의 권리가 박탈당한다면, 그것은 결국 내 권리가 박탈당할 가능성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생리는 재생산권 논의 및 환경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것들은 지구인이라면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생리는 우리 모두의 일이다.

<대안 달거리대 만들기 행사(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가 면 생리대 및 생리컵 등 대안 용품의 사용 그 이상의 논의까지 확장되기를 바란다. 재사용이 가능한 면 생리대와 생리컵은 분명 환경 및 건강에 도움이 되고 경제적이다. 하지만 이들을 세척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위생적인 환경(예를 들어, 모두의 화장실)이 함께 제공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대안 용품의 사용은 불가능하다. 또한 일회용 생리용품이든 재사용 생리용품이든, 그것을 구매하기 어려운 여성들도 적지 않다. 이들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생리용품의 공공재로의 전환 등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리할 수 있으려면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한 두 개가 아니다. 이는 그만큼 더 많은 공론장에서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대안 달거리대 만들기 행사>처럼 학내에, 또 우리 사회에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론장이 여럿 형성되기를 소망한다.



# 장애인 이동권 시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김지수

## - 장애인 이동권과 지하철 탑승 시위

지난 2022년 한 해 간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는 2023년, 해가 바뀌어서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변한 것은 시위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 측의 대응 수위와 방식이다. 이들은 시위(혹은 결의대회)가 벌어지는 역을 정차하지 않고 통과하거나 안전문 전원을 차단하는 등 200명 이상의 무장 경찰을 배치하면서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참여자들의 지하철 탑승을 막았다. 이 글의 기고일인 1월 31일의 당장 하루 전인 1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이 주장하는 탈시설 예산을 10년간 충분히 반영’해왔다고 하며 ‘무관용 원칙’으로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에 앞으로도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전장연의 시위가 모든 시민에게 지지를 받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기사 댓글,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은 전장연의 시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헐뜯기 위해서는 사실의 왜곡과 인신 모독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전장연 시위로 인한 지하철 탑승객들의 불편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출퇴근시간마다 지하철이 20분씩 정체되고 지각할까 마음을 졸이는 일이 날마다 반복되는 것은 일반적인 포용력을 가진 사람에게 아무렇지 않게 무시할 수 있을 만큼의 사소한 문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인가? 왜 나는 내리고 싶은 지하철역이 무정차 통과되고, 출퇴근시간 20분씩 정차된 지하철에서 시간을 허비해야만 하는가?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지하철 탑승 시위 참가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 ‘장애인 이동권’의 보장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그 뜻이 남다르다. 단순히 어딘가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의 의미로,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듯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핵심적인 기본권인 것이다. 정상과 비정상의 이분법적 구분을 당연시하던 근대에서부터 이어진 장애인의 사회로부터의 배제와 차단의 오랜 역사를 고려하면, 장애인들에게 있어, 그리고 장애학에 있어 이동권의 보장이 가지는 무게는 누구나 예상 가능하다. 이들에게 있어 이동권 보장이란, 탈시설이나 장애인 노동 문제 등 그들의 삶의 본질적인 부분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떠받드는 수많은 기둥들을 잇는 한 축인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이동권’은 곧 ‘생존권’이고, 그것이 이들이 일부 시민들의 저속한 모함과 서울시의 강도 높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지속하는 이유인 것이다.

장애인 탑승 시위로 인해 목적지에 예상 도착 시간보다 20, 30분 가량 늦었음이 용납되지 않을 수 있으나, 장애인들은 이동권에 있어 적어도 그보다는 훨씬 복잡한 문제를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이 글은 ‘장애인들은 더 힘드니까 비장애인인 너가 좀 견뎌’라는 논지의 간편한 글은 아님을 밝힌다. 그보다는 장애인 지하철 탑승 시위가 가지는 본질적 의미와 그 의미를 퇴색시킨 권력 주체들과 구조에 대해 논한 후, 장애인 이동권과 장애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에 질문을 던지며 글을 맺고자 한다.

## - 정부의 정책 지원은 실로 충분한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주장 중 대표적인 것은, 장애인 이동권 관련 복지 예산은 이미 충분히 증액되었으며 서울시 역사의 93%가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갖추었는데 충분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통계 수치가 그러하듯 단순한 숫자 그 자체만으로는 볼 수 없는 함정이 존재하다.



먼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이동권 예산은 실제로 1090억원 에서 2245억원으로 증액되었다. 그러나, 첫째로, 과거 2021년도에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을 두 배 증액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적 있으나, 최종적으로 확정된 예산안은 그로부터 441억원 삭감된 1091억원이었다. 다시 말해, 올해도 두 배로 증액한 국토교통부의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에서 확정될 확률은 극히 낮다는 의미이다. 두번째로, 해당 예산안의 액수는 실상 한국의 교통 약자의 현황과 장거리 이동권 개선에 유의미한 변화를 남기에 여전히 역부족이다. 단순히 ‘이동권 예산’ 투입이 2배가 된다고 하여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 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이동권 개선 정도도 2배로 산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해당 이동권 예산에는 저상버스를 위한 버스정류장 설치 예산이나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 배리어프리 인증 사업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장거리 이동권 개선이 현저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 힘들다.

93%에 달하는 서울시 ‘1역사 1동선’ 확보율도 그 수치가 주는 느낌과 달리, 서울시 장애인들이 지하철 탑승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는 증거와는 거리가 멀다.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서울시 지하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다른 광역시도의 지하철과는 달리 수많은 지하철 호선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환승역이 많아 이를 통한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컷뉴스(2022.04.07.)에서 지적하듯, 서울시 지하철역의 93%가 1역사 1동선, 즉 장애인 스스로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해 역사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역은 100곳 중 92곳이 될 지언정, ‘1역사 1환승’, 즉 환승 경로에서의 이동이 자유로운 역사는 전체에서 50%가 되지 않았다. 이런 경우, 휠체어 탑승자는 어쩔 수 없이 환승 경로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게 되는데, 한국 장애인 이동권 시위의 촉발 계기가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리프트 사망 사고였다는 점을 떠올렸을 때, 결국 이 자체가 이동권 시위의 타당성만을 보태주는 셈이 된다.



## -언론 보도의 알맹이는 어디 가고 껍데기만 남았는가?

이 같은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호도하고 단순한 사회적 혼란,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음모’로까지 그 본질을 어지럽힌 데에는 언론이 큰 역할을 하였다. 한국기자협회(2022.04.05.)에서도 지적하듯, 각 언론사들은 전장연 시위에 있어 정치인들의 발언을 그대로 따옴표 안에 담아 보도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필요성이라는 문제의 본질은 회피하고 그 위에 남은 대립 구도만을 부각시켰다. 이는 더 나아가, 스포츠(2023.01.26.)에서 분석하였듯, 정치 성향, 즉 진영 논리의 대립으로 이어졌다. 실제 서울 지하철의 이용 시민들이 실제적인 지하철 이용의 불편 경험으로 인해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비판/비난할 확률보다, 특정 정치적 신념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개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를 접한 후 이를 비판하고 비난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언론보도에는 정치인 개인의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사실적 혹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공개적 비판(혹은 비난)이 선행되었기에 만들어질 수 있었던 대립 구도이긴 하나, 언론은 이 대립 구도를 악화시키고 고착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결코 면할 수 없다. 언론이 ‘여론을 형성한다’ 혹은 ‘프로파간다를 전달한다’고 할 때 그 방식은 단순히 보수 혹은 진보 정치 성향이 분명한 언론사의 칼럼 섹션처럼 누가 보아도 편향됐다고 느끼는 기사만을 심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실적 근거가 뒷받침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유명 정치인의 말을 그대로 옮겨오는 따옴표 저널리즘도 사람들에게 특정 신념을 가지게 하는 ‘프레이밍 효과’를 낳는다. 전장연 시위 기사에 달렸던 한가지 악플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정치인의 발언이 언론의 보도로 연결된 후, 장애인 이동권 이슈에 대한 근거 없는 신념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간단히 보여주고자 한다.



“전장연은 순수 장애인들과는 다른 이익 집단이다. 이들은 탈시설을 지원해서 자기들 시민단체가 돈을 얻어먹으려는 것이다. 이 배후에는 공산민주당(혹은 빨갱이단체)가 있다.”

이 같은 감정적인 글은 마치 두서없고 근거 없는 비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문장이 언론이 그대로 옮겨왔던 정치인의 발언으로부터 비롯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장연을 ‘순수하고 무해한 장애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이들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투쟁을 ‘전장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시도’라는 틀로 재구성한 후, 과거 이동권 시위의 시기를 지적하며 특정 정당 혹은 사회적으로 비방받는 그룹과 연결시킨 것. 이 모든 것은 전형적인 프로파간다 테크닉의 결과물로 모두 언론이 “따옴표”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과는 구분되는 양 그대로 옮겨왔던 정치인의 언어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알맹이는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언론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 무관하게, 혹은 그들의 의도대로 장애인 이동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데 성공한 것이다.

#### - 사법 제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사법 제도는 장애인 이동권에 있어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왔는가? 먼저 1차적으로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대표적 반대 논거인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비록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전장연 쌍방 간의 많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로 판결이 내려진 최신 판례는 2022년 10월 18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버스 운행방해 시위에 대한 1심 판결일 것이다. 해당 판결에서 전장연 박경석 대표는 버스운행을 20분간 방해하며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실 출퇴근길 지하철 시위 또한 그 위법성에 있어서 많은 논쟁이 존재한다. 국민일보(2022.03.30.)에서도 지적하듯, 출퇴근 시간의 시위가 위법성이 없냐고 하면 그렇다고 단언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 단순 역지사지로 해당 문제를 이해하라고 넘길 수 없는 것은, 장애인 이동권이 시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의 기본권과 충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시위 방식이 철도안전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사법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시민불복종’의 형태를 띠고 있는 만큼 위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시위라는 점에서 법원이 이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사실 자체가 그르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2년 2월 17일, 장애인 시외이동권 보장을 위한 차별구제소송에서 시외버스에서 휠체어 승강설비를 마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지자체 뿐만 아니라, 버스회사들에게서까지 면제해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결국 사법 기관의 이러한 판단들이 모여 장애인 이동권의 퇴보로 이어진다는 생각은 감추기 힘들다. 물론 대법원은 이익 형량 결과, 모든 노선에서 탑승설비 설치가 현실성, 개연성이 부족하므로 단계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라는 판단을 남겼으나,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에 관한 정부의 지도 감독 책임 또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은 장애인 이동권에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법조계와 법률전문가들은 전장연 시위의 위법성을 다투고 형사 처벌을 하는 것보다도 장애인 이동권의 개선이 급선무라 입을 모아 말하지만, 결국 입법부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그 본질에 다가서고 있지는 않다.



## -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박준환(2017)에서 분석하였듯, 독일, 캐나다, 핀란드 등과 달리 이동권을 거주 이전의 자유에 부속되는 권리로서, 일종의 ‘부당한 침해’를 배제해야 하는 소극적 자유로서 제한되어 해석되는 한국에서 장애인의 이동권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식되기란 몹시 힘든 일이다. 장애인이 가깝게는 여행과 여가부터 멀리는 교육과 노동, 가족의 선택과 거주 및 이전 등의 삶의 주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그 선택지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수많은 비난과 법률적 사회적 분쟁을 무릅쓰고 지하철 탑승 시위라는 형태로 그들의 뜻을 사회에 전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먼저 정책과 제도, 관행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는 수많은 정치적, 재정적, 시간적 재원이 소요될 것이다. 그러나 이를 불필요하거나 미뤄도 되는 일로 치부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초고령 사회로 수 년 내로 접어들 한국의 교통약자 비율은 절대 무시할 만한 수치가 아니며, 이동권 개선 문제는 일각을 다투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과 정책의 집행 및 감시 과정에 있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또한 면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앞선 단락에서도 지적하였듯 관련 사법적 판단과도 무관하지 않다. 언론 또한 소위 ‘manufacturing consent(동의 구하기 혹은 여론 조작)’의 기능을 넘어선 제대로 된 저널리즘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장애인 이동권 시위에 대한 사실 검증이나 여론 분석 등 이 글의 재료가 되었던 많은 기사나 저널들은 이렇게 말한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언제든 장애인이 될 수 있음을 떠올려보라.”



당연하지만, 사회에서 가장 약자인 자가 편해지면 상대적으로 강자인 그 외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밖에 없다. 휠체어가 갈 수 있는 길을 유아차를 끄는 사람, 지팡이를 짚은 노인, 보폭이 좁은 어린이, 무거운 짐과 캐리어를 끈 여행객들이 지나다니기 힘들 리 없기 때문이다. 많은 좋은 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장애 당사자가 아닌 비장애인 입장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문제의 시급성을 이해시키기 가장 쉽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이기적인 인간일지라도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자신이 최약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할 때면 자신에게 최소한의 불이익이 돌아오길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 생각해보자. 타인과의 소통과 공존의 가치를 느껴보지 못한 이기적인 개체로 자신을 상정하지 말고, 다양한 구성원들과 어우러져 사회를 살아가는 한 명의 민주 시민으로서 눈을 떠보자는 의미이다. 그 때 우리는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다. 내가 늙고 약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장애를 얻을까 하는 공포에서 비롯된 얇은 공감의 벽을 넘어서, 이동권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을 동등한 민주 시민으로서 바라보며 “우리”와 “공공”이라는 개념의 외연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만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모든 차별과 혐오에 대한 새로운 시야와 비판적 시각의 지평을 열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다시 질문해보자.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있어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참고문헌

- 박준환(2017),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이동권의 의미와 과제>, 이슈와 논점(1371호), 국회입법조사처, www.nars.go.kr (최종접속일 2023.01.31.)
- 경향신문(2022.10.18.), “버스 시위’ 23분에 징역 4개월 집유…전장연 대표 “차별적 판결””,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10181146001> (최종접속일 2023.02.01.)
- 국민일보(2022.03.30.), “법조계도 전장연 논쟁… “위법 소지 있지만 처벌은 대안 아냐””,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38288&code=11131100&cp=nv> (최종접속일 2023.02.01.)
- 노컷뉴스(2022.04.07.), “[단독]서울 지하철 절반, ‘1역사 1환승’ 안됐다…장애인 이동권 ‘사각지대’”, <https://www.nocutnews.co.kr/news/5735942> (최종접속일 2023.02.01.)
- 노컷뉴스(2022.04.20.), “‘장애인 이동권’ 지방이 서울보다 낮다?...’1역사 1동선’격차도”, <https://www.nocutnews.co.kr/news/5743181> (최종접속일 2023.02.01.)
- 비마이너(2022.03.12.), “장애인 시외이동권 전면 부정’ 8년 만의 대법원판결”,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937> (최종접속일 2023.02.01.)
- 비마이너(2023.01.20.), “삼각지역 또 탑승 거부, 장애인은 휠체어에서 몸 던져 지하철 탔다”,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506> (최종접속일 2023.01.31.)
- 스프(2023.01.25.), “‘지하철 이용자는 전장연 시위 지지하기 어렵다’ 사실일까?”, <https://premium.sbs.co.kr/article/MnZdmi2TPf> (최종접속일 2023.02.01.)
- 시사위크(2022.11.25.), “[갈 길 먼 장애인이동권⑩] 2023년 이동권 예산의 숨겨진 그림”,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963> (최종접속일 2023.02.01.)
- 연합뉴스TV(2023.01.30.), “오세훈, 전장연 시위에 “논리적으로 모순” 비판”,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30130015700641> (최종접속일 2023.01.31.)
- 한국기자협회(2022.04.05.), “‘따옴표 저널리즘’에 사라진 장애인 이동권 문제”, [http://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1307](http://www.journalist.or.kr/m/m_article.html?no=51307) (최종접속일 2023.01.31.)
- 함께걸음(2022.05.30.), “장애인 이동권의 의미와 이동권 보장의 과제”, [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03&wr\\_id=10144&page=2](https://www.cowalknews.co.kr/bbs/board.php?bo_table=HB03&wr_id=10144&page=2) (최종접속일 2023.01.31.)
- JTBC뉴스(2023.01.03.), “[팩트체크] 전장연 시위 ‘강대강 대처’, 왜 출구 못 찾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9646](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9646) (최종접속일 2023.01.31.)



## 인권·성평등센터 활동을 마무리하며

인권성평등센터 연구교수 이진원

2016년 4월에 교내에서 발생하는 복합적인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센터가 설립되었으며, 저는 초창기 멤버로서 본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의 존엄성을 알리는 데 이바지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정책을 추진하고 국내 대학 중 선도적으로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 학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문화를 확립하고자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성평등센터와 인권센터가 인권·성평등센터라는 이름으로 통합 운영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포함한 인권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기존의 교육과 상담 및 피해구제 활동에서 더 나아가 4단계 BK21 대학원혁신사업에 참여하여 「인권과 성평등 교육」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고, 2022 학년도에는 COVID-19 팬데믹으로 비대면 교육의 수요가 높아져 본교 인권·성평등센터에서 개발한 자체 콘텐츠를 타 대학과도 공유하였습니다. 본 콘텐츠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으로부터 우수콘텐츠로 인증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매달 월례세미나를 개최하여 다양한 인권·성평등 주제를 소개하면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활동과 현장 상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고 학생과 인권단체를 연결하여 직접 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 자원연계 참여형 프로그램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성과로 2022년 12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여하는 대한민국 인권상에 인권·성평등센터가 선정되어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센터의 업무는 더욱 확장되고 고려대학교 내에서의 위상도 더 커지리라 기대되며, 따라서 센터 구성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성평등센터의 역할이 확장되고 활발해지는 가운데에는 서포터즈들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는 센터와 교내 구성원들의 연결고리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고려대학교의 인권에 대한 흐름과 현황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여 센터가 이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다양한 홍보와 안내를 통해 인권 존중 및 성평등을 바탕으로 한 대학문화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들은 인권과 성평등(성소수자, 노동자, 장애인 등)에 관련된 이슈를 자발적으로 모여 토론하고, 다양한 행사(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인권에 대한 배움과 실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센터 밖 선후배 또는 동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과 성평등의 이슈를 제대로 바라보고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하며, 이는 앞선 서포터즈들의 활동과 실천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서포터즈가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생각하며 함께 논의하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느낍니다. 지난 2022년 서포터즈들의 활동도 이러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2023년에도 다양한 활동 기획을 통해 이어갈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반복되는 젠더 기반 폭력을 포함한 침해행위의 발생 예방과 해결을 위해 인권·성평등센터 구성원들은 서포터즈에서부터 교직원까지 모두가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내 올바른 인권과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고려대학교 구성원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4. 2022년 활동을 마치며



2022년 한 해 동안 인권·성평등센터 및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해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 2023년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모집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인권과 젠더 이슈에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할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란?

고려대학교 인권·성평등센터의 학생 서포터즈는 센터의 업무와 기능을 알리고, 인권존중을 바탕으로 성평등한 대학문화 및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임입니다. 동아리 모임처럼 함께 고민하고, 공부하며 학내에 건강하고 평등한 문화를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는 어떤 일을 하나요?

### 교육 및 강연 참여

인권·성평등센터에서는 ‘고려대학교에 인권·성평등센터가 필요한 이유’, ‘인권·성적자기결정권과 고려대학교 규정’, ‘생활 속에서의 차이와 차별’, ‘인권·성인지감수성’ 등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적, 법적, 의학적 주제 등 인권과 젠더 이슈 전반에 대한 교육과 외부인사 초청강연회에 참여합니다.

### 캠페인 기획 및 진행

인권·성평등센터가 학기 중 마련하는 인권과 성평등 바로 알리기 캠페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 서포터즈 소식지 제작

한 학기 동안 활동한 내용을 바탕으로 서포터즈 소식지를 제작합니다.

### 소모임 참여

친환경 면생리대 만들기, 인권 및 젠더 이슈 전반에 관한 책모임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 인권·성평등센터 서포터즈 지원 문의

Home page : [humanrights.korea.ac.kr](http://humanrights.korea.ac.kr)

e-mail: [humanrights@korea.ac.kr](mailto:humanrights@korea.ac.kr)

자세한 사항은 인권·성평등센터(☎02-3290-1700)로 문의해 주세요. 언제나 환영입니다!